

조이스 안 시의원, '부에나파크시 부시장' 선출

조이스 안 부에나파크시 1지구 시의원이 이 시의 부시장으로 선출됐다.

부에나파크 시의회는 12일 정기 회의를 열고 안 시의원을 부시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시장 선출 투표에서는 수전 소네 부시장의 시의원 전원의 지지로 선출됐다.

안 부시장과 수전 소네 시장은 이날부터 1년 동안의 임기에 돌입했다.



▲ 조이스 안 사진=ocvector.org

어들을 위한 정보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주도해 한국어로 의료 서비스, 생활보조, 재정 지원, 자산 관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한인들의 호평을 받았다. 당시 안 시의원은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영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정보 습득에 불편을 겪고 그 결과 다양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피력한 바 있다.

안 부시장은 또, 지난 10월 26일 부에나파크시가 이 도시의 비치 블러바드와 로즈크렌스 애비뉴에 이르는 약 3마일 구간을 코리 아타운으로 지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안 부시장은 부시장 선출 소감으로 "부에나파크시를 혁신적이며 경제가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시 정책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부에나파크 시의회는 시장 임기 만료 시 부시장을 차기 시장으로 선출하는 전통이 있어 안 부시장은 내년 연말에 부에나파크 시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안 부시장은 지난 9월, 부에나파크시가 한인 시니

LACC, UC·CSU계 학점 인정 무료 온라인 한국어 강좌 개설

LA시티칼리지(LACC)가 중·고등학생이 대학 학점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무료 온라인 한국어 강좌를 개설했다.

12일 LACC는 내년 1월부터 초급, 중급, 고급 등 단계별 무료 온라인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 강좌는 수강생이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해 녹화수업, 비디오, PPT 등 관련 자료를 반복 시청하며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비상시간으로 진행되며 캘리포니아주 중고등학생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강의 내용에는 한국 문화도 포함됐으며 강좌를 이수할 경우 UC계열 대학과 캘스테이트계열대학(CSU)에서 3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첫번째 LACC 온라인 '한국어 강좌(Korean 21)'는 오는 1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되며 한국어 초보

자를 위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내용을 담았다. LACC는 내년 봄, 8주 과정의 두 번째 온라인 한국어 강좌(Korean 22)를 진행할 예정이다.

LACC 무료 온라인 한국어 강좌 수강 신청은 해당 웹사이트(www.lacitycollege.edu/admissions/student-checklist/high-school)에서 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일반인들도 LACC 온라인 강좌를 신청(www.lacitycollege.edu/academic-resources/online-learning/student-resources/readiness) 수강할 수 있다.

StateUniversity.com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LACC 한국어 프로그램(www.lacitycollege.edu/academics/aos/korean)은 전미 대학 한국어 프로그램 평가에서 하와이대학에 이어 전국 2위에 올랐다. LACC는 한국어로 준학사 학위를 제공하는 최초의 커뮤니티 칼리지이다.

한인 셰프 '물회면', NYT '올해 최고의 요리' 선정



▲ 샌프란시스코 한식 레스토랑 반상의 '물회면'. 사진=instagram(annette,chev) 캡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퓨전 한식 레스토랑의 한 메뉴가 뉴욕타임스(NYT) '올해 최고의 요리 23선' 중 하나로 선정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전미 미국 전역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 중 최고의 요리 23선을 발표하면서 샌프란시스코 한식 레스토랑 '반상'의 '물회면'을 포함했다. 이는 뉴욕타임스가 자체 기준으로 선정해 발표한 것이다.

물회면은 면에 생선회와 무·오이 등 채소 등을 올리고 매콤한 소스를 부어 먹는 요리로 한국식 물회를 응용한 퓨전 요리다.

NYT는 "각 재료의 특성이 분명해 보이지만, 입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며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 먹어도 활기를 북돋워 준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재팬타운에 문을 연 레스토랑 '반상'은 이 지역의 유명 레스토랑을 거친 한인 셰프 민승현과 진 림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누리집(홈페이지, bansangsf.com)에 "손님들은 전통 스타일의 한국 요리에 대한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식당을 소개했다.

이들은 누리집 메뉴판에 한글과 영어를 병기하고, 인스타그램에도 한글로 요리를 소개하고 있다.

민 셰프는 지난 7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식을 처음 접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국 요리의 맛을 알려주는 입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